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12	10. 19	10. 26
대 표 기 도	장래환 형제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성 경 봉 독	장래환 형제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추수감사절 - 범사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 새학기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5. 신입생 안내, 전도 - 봉사할 분들은 청년 회장께 신청바랍니다(6일 오후 1시, 음대)
6. 나눔의 시간 - 음식으로, 강단장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9월)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추수감사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89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살전 3 : 6 - 10(신p330) (1.Thessalonicher 3:6~10)	김정규 형제
특별찬송 Sonderlied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믿음과 사랑의 감사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막14:22~26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내 바탕은 무엇인가?

얼음으로 탑을 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하나 얼음덩어리를 쌓아 올려 높은 탑을 쌓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쌓아 올릴 바탕이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얼음 탑을 쌓을 곳이 펄펄 끓는 철판 위라면 아무리 열심히 얼음을 쌓아도 절대로 그 탑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쌓일 마음이 냉랭하게 굳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펄펄 끓는다면 자기 의가 될만한 일들을 수없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녹아 없어져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기 의가 한없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와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쌓아가고 있다면 그의 선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한 선행은 아무리 쌓여도 스스로에게 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헌신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선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부자앞에서 얼마 안 되는 1원짜리 동전을 세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조차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묵상 /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원로)

###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살피고 돌보는 것은 누구여야 할까요?
2.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실제적인 것을 나눠보세요.